

## 염류 저항성·다수성 인삼 신품종 ‘천량’

김영창 인삼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인삼은 국민소득 수준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삼의 안정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안정된 인삼을 생산하기 위한 내재해성 품종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10여년의 연구 끝에 내재해성 특성을 지닌 인삼 새품종 “천량(Cheonyang)”을 개발했다.

### ● 수량 많고 염류 저항성이 강하고 고온에도 잘 견디는 “천량”

“천량”은 재산, 재물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인삼의 다수확,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99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1,000여 점의 인삼유전자원을 수집해 그 중 우량계통을 집중적으로 선발하고, 또 선발된 우량계통을 수차례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했다. ‘천량’은 기존품종 ‘천풍’에 비해 수량이 10% 정도 많고, 염류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며, 고온에도 잘 견디는 등 품질이 좋아 기후변화에도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기억과 학습기능 증진작용에 관여하는 Rg1와 Rg2 등의 사포닌함량이 특히 높

은 특성이 있다. 줄기는 연한 자색이고 열매는 적색이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잎이 아래로 뒤집혀 볼록한 형태를 나타내 다른 품종과 쉽게 구분된다는 점이다.

### ● 모잘록병과 점무늬병 방제를 철저히 해야

재배시 유의할 점은 우량묘삼 생산을 위해 모밭에서 모잘록병 방제를 철저히 해 주어야 하며, 본밭에서는 봄철 집중 강우나 우기가 길어질 경우 점무늬병이 다량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제에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 또한 개화 초기 병방제를 위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결실 불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종자량을 최대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농도에 맞게 살포해야 한다.⑤



열매



잎



뿌리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2014년 2월호〉